

내일부터 백신 접종... 오늘 3900명분 도착

도,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 3193명 우선 시행
10명 단위 접종... 경우에 따라 보건소 직접 방문

제주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다. 첫 코로나19 백신은 10명이 동시에 맞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은 배가 25일 오전 1시 목포항을 출항해 이날 오전 6시쯤 제주항에 도착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6일부터 9곳 요양병원과 60곳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제주에는 3900명이 맞을 수 있는 백신 물량이 첫 배정됐다. 앞서 도가 첫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3330명을 상대로 접종 의향을 묻은 결과 이중 95.8%인 3193명이 접종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밝힌

나머지에 대해서도 접종을 독려하는 한편 첫 접종이 끝나고 남은 700여명 분량에 대해선 2차 접종 때 사용할 계획이다. 백신은 제주항 도착 후 군부대와 경찰의 경비 아래 도내 보건소 6곳과 요양병원 9곳에 보내진다. 요양병원은 백신을 받자마자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한 보건소가 접종을 한다. 단 접종 인원에 따라 보건소가 요양시설에 방문해 접종하는 경우와 요양시설 종사자·입소자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 접종을 해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백신 한 바이알(vial·약병)에 10명 접종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 요양시설의 접종 인원이 13명이라고

가정하면 약병 2개를 열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나머지 7명분은 쓰지 못하고 폐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백신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10명 단위로 접종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때 맞는 10명이 동시에 제주 1호 접종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종이 끝나면 고위험 의료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해 1분기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1분기 접종 인원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입소·종사자 3193명,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51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889명,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2186명 등 9819명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등이 맞을 화이자 백신은 중앙·권역 예방접종센터가 해당 병원으로 직접 배송할 계획으로 도내에는 3월 중순

쯤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mRNA 백신인 화이자를 비롯해 모더나 백신은 초저온(영하 60~영하 90℃)상태로 보관해야 해 냉동고를 갖춘 센터에서 접종해야 한다. 접종 센터는 제주시 한라체육관과 서귀포시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등 2곳이 선정됐다. 이미 냉동고 설치를 마친 제주시 한라체육관 접종센터는 오는 4월부터 가동될 계획이다. 서귀포시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는 다음달 냉동고를 설치해 6월부터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18세 이상 57만 5116명 중 집단 면역 형성을 고려해 이중 70%인 40만 2580명을 상대로 오는 11월까지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눈 앞'

오늘 법사위 의결되면 내일 본회의서 최종 결론
4·3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 재정지원 근거 담

법 제정 22년만에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처음으로 제주4·3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체계·자구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선다. 법사위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26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된다. 국회 마지막 관문을 남겨두고 있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보상과 관련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대폭 수정하는 우려곡절을 겪었다. 20대 국회에서 국가 보상 조항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정부 반대 의 벽을 넘지 못해 폐기되자, 오 의원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뒤 지난해 7월 보상 조항을 다듬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부를 움직이지 못했다. 역시나 '보상'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한 뒤에도 기존 반

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부총리에게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고, 지난해 12월 18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됐다. 당정 합의안은 오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서 보상금 및 기준, 절차를 규정한 제17~26조는 삭제하는 대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오영훈 의원은 "위자료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의미한다"며 "배상의 용어를 정부당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수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마련한다'로 강제성을 두는 성과를 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배보상 아닌 위자료라는 점에 내부 이견이 있었지만 이후 용역수행과정에서 유족의 의견을 꾸준히 전달한다는 전제하에 당정의 안을 수용했다. 국회·부미한기자 bu8385@ihalla.com

재난출동~이송 전 과정 신속 응급관리체계 구축

과기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1년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전액 국비 17억6000만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신고자·소방관·구급차의 실시간 위치를 확보·대응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전원기관 간 연계를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미래전략국, 소방안전본부, 병원 등 관계기관들의 협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제주도는 매년 1500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입도하고 있으며, 도·농 복합 환경에 따른 지역 특



신축년 송당리마을제 신과세제 음력 1월 13일인 24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마을에서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5호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사업으로 한 해의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과세제가 진행됐다. 송당리마을제 의식재현사업을 주관한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송당리마을제 입구에 도민 소원을 담은 '코로나 극복 바람-천개의 바람 꽃'도 전시한다. 이상민기자

성 상 인적이 드문 외곽지역 관광코스가 많아 현장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환자 전원(傳院) 협의체 공동대응 모니터링 부재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 의료기관 등

이 공동으로 실시간 상황 관제 모니터링을 통해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관계기관 공동대응 체계를 최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된다.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 안전 서비스 구축사업은 신고

부터 출동까지 실시간 위치관제가 가능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출동에서 이송까지 전 과정에서 병상정보 등과 연계한 신속한 응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된다. 고대모기자

국가정보통신사업 3월부터 본격 서비스

행정시 등 관리체계도 일원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한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보안성과 품질이 확보된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기관 전용 통신 이용 제도이다. 제주도는 행정시를 포함해 5년마다 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통신 환경을 고도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5년간 총 90억원(월 1억5000만원)을 투입해 최근 빅데이터 등 대용량 데이터 수요와 변화하는 미래 업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신망의 안전성, 보안성, 업무 효율성 등을 강화했다. 또한 각종 정보통신 재난사고에 대비해 주요 장비 및 통신망을 이중·이원화로 구성하고, 전송망과 정보통신 이용 속도를 대폭 확대·증속함은 물론 도서지역 통신망인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중화해 안정성을 높였다. 이어 행정시, 사업소, 소방본부 등 총 867회선을 구축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고대모기자

지난 일년 버티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함께라면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1971년부터 2021년 까지
한림공원 창립 50주년

모래밭 황무지를 식물의 낙원으로 만든 개척정신을 계승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힐링명소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50년간 한림공원에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욱 정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www.hallimpark.com Tel 064) 796-0001 / Fax 064) 796-0006 (630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300